

한국 풍수설화 속 인간과 자연의 특별한 관계*

윤흥기**

- I. 들어가면서
- II. 풍수지리설 속 인간과 자연의 관계
- III. 한국 풍수설화에서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기능하는 경우
- IV. 한국 풍수설화에서 자연이 인간의 일부로 기능하는 경우
- V. 한국 풍수설화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
- VI. 마무리

<국문초록>

한국의 풍수설화 즉 풍수지리설을 다루는 설화에서는 한국인의 자연관과 함께 인간과 자연이 관계 맺는 양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풍수설화 네 편 - 장군대좌혈에 위치한 우암 송시열의 묘, 별집형 명당, 달성서씨 시조묘, 명당 쓰고 탄생한 심왕비 - 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이 네 전설에는 살아 있는 사람[장꾼이나 학생]들이 지형의 결점을 메꾸어 주거나, 개미가 한 일을 사람[일꾼]이 한 일로 참작해주고, 올챙이에게 배푼 은혜를 사람에게 배푼 은혜로 간주하는 경

* 이 글은 The University of Auckland로부터 연구년 휴가를 받아 2019년 3월부터 2019년 8월 까지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에 방문학자로 있을 때 마무리하였다. 이 글은 학술회의 주제 발표문, “한국의 문화경관 해석 방법으로서의 풍수지리”, 제19회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풍수지리 심포지엄: 한국의 문화경관과 풍수지리(영남대학교 대구캠퍼스 경영관, 대강당, 2019년 6월 15일, 47~68면) 중에서 풍수설화에 관한 토론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확장한 것이다. 이 글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종목 교수님과 한국학 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 연구소 유진아 박사님, 그리고 원고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맞춤법과 표현을 바로잡아 주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시수로 남윤혜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The University of Auckland

우가 보인다. 이런 식으로 자연을 인간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자연관의 일면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인간과 자연의 구분을 없애고 양자를 서로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는 것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 설정 방식에 대한 한국 고유의 면모라고 생각된다.

핵심어: 풍수지리설, 풍수설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관, 명당

1. 들어가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풍수지리설에는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서로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면이 있다.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독특한 관계를 읽어낼 수 있는 옛날이야기들이 풍수설을 주제로 한 설화 즉, 풍수설화 속에 나타난다. 여기에는 한국인이 형성해온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가 비근한 예를 통하여 표출되어 있다. 전근대 한국의 이러한 자연관은 다른 자료들보다도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오는 풍수 설화에 더 잘 나타나 있다고 보인다. 본인이 쓴 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저자가 밝혀져 나오는 논문이나 기사와 달리, 설화란 원칙적으로 작자 미상인 옛이야기이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narrator]은 이야기의 저자가 아니라 전승자일 뿐이기에 설화 내용에 대해 저자로서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설화에는 자기검열 과정을 거치고 저자를 밝힌 글과 달리 여과되지 않은 상상이나 억눌린 생각이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 설화에는 한국인의 생각과 감정이 여과 없이 잘 들어나 있는 면이 있다.

풍수란 생기가 모여 있는 길지를 찾아 조상의 묘를 만들거나 집을 지어 살면 땅의 생기가 살아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어 복을 받는다는 민간신앙이고, 설화는 주로 구비 전승되어 내려오면서 민중의 생각을 담은 신화, 전설, 민담을 포함하는 옛 이야기이다. 풍수설화는 풍수지리설을 소재로 한 옛 이야기들로서 주로 지관들의 술수와 행태에 관한 이야기, 명당의 구비조건에 관한 이야기, 부모상을 당한 상주들이 어떻게 명당을 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명당의 발복 형태에 대한 이야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풍수설화에 나타난 독특한 인간-자연 관계의 일부를 발굴하여 논하고, 이들이 한국의 전통적인 인간-자연 관계의 일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토론할 네 편의 풍수설화에는 다른 풍수 설화나 다른 일반 설화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간의 개념, 자연의 개념 및 독특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설정이 보이는데 이러한 면은 다른 이웃나라 즉 중국의 설화나 일본의 설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네 편의 풍수 설화에 나타난 독특한 인간과 자연 관계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인 개념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채집된 한국의 풍수설화는 대체로 음택풍수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주로 길지(吉地)를 찾아 무덤을 만드는 것과 관계되는 옛이야기들이다. 양택풍수 즉 살아있는 사람들의 거주지에 대한 것으로서 개인 집이나 궁궐, 도시나 마을 등에 관한 전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풍수의 기본 취지와 이론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풍수의 기본 이론서이자 가장 중요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괘박(郭璞)의 『장서(葬書)』도 책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죽은 사람의 무덤을 좋은 장소에 마련하기 위한 책이다. 풍수술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땅속의 생기(生氣)를 살아 있는 사람이 땅 위에서 받아서 복을 누리는 것인데, 땅속에서 조상의 뼈가 이 생기에 감응되면 조상의 뼈와 살아 있는 후손들은 같은 기(氣)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땅속의 생기가 조상의 뼈를 통하여 살아 있는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음택 즉 조상의 무덤을 통하여 생기를 받는 것이 지상에서 길지에 집을 짓고 살면서 생기를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풍수신앙이 한국의 풍수설화에 그대로 반영되어 음택풍수에 관한 전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인다. 이 논문에서 주제로 다루고 있는 네 편의 전설도 모두 음택풍수와 관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출판된 풍수 설화 연구에는 세편의 단행본 신월균,¹⁾ 장장식,²⁾ 이미현³⁾이 있다. 이들은 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韓國口碑文學大系)』, 혹은 서대석 편 『조선조문헌설화집요(朝鮮朝文獻說話輯

1) 신월균, 『풍수설화』, 밀알, 1994.

2) 장장식, 『韓國의 風水說話 研究』, 민속원, 1995.

3) 이미현, 『남부지방의 풍수설화연구』, 문경출판사, 2008.

要)』 I·II 에 실린 여러 가지 풍수 설화를 소개하고, 풍수 설화의 유형을 면밀하게 분류하였으며 풍수 설화의 특징을 논하였다. 장장식의 연구⁴⁾는 풍수 설화의 유형별 구성 특징을 밝히고, 풍수설화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도 깊이 있게 논의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풍수설화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즉 인간과 자연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서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는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여서 서로 호환될 수 없는 독립적인 존재로 보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 또 이 글에서 다루는 네 편 설화를 다루지 않았고, 이들 설화에 나타나는 독특한 인간과 자연 관계 역시 다루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풍수 설화를 주제로 한 학위논문이 28편, 단일논문 45편이 확인된다. 이 논문들이 다루는 주제로 미루어 보아, 이들은 주로 풍수 설화의 형태 분류, 설화의 구조 와 전승 양상, 음택 및 양택 이론 인식, 명당과 발복신앙, 풍수설화의 문학적 성 등을 고찰하고 있다. 정영철의 건축학 논문⁵⁾은 풍수설화의 건축적 해석을 시도하였고, 풍수설화에는 천지인 합일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는 풍수설화 속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합일될 때 비로소 조화로운 삶의 현상적 관계가 열린다.”⁶⁾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논증은 하지 않았고, 이러한 세계관이 어떻게 풍수설화에 실제로 나타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의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네 편의 설화에 나타난 독특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발표된 풍수설화 연구서나 논문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I. 풍수지리설 속 인간과 자연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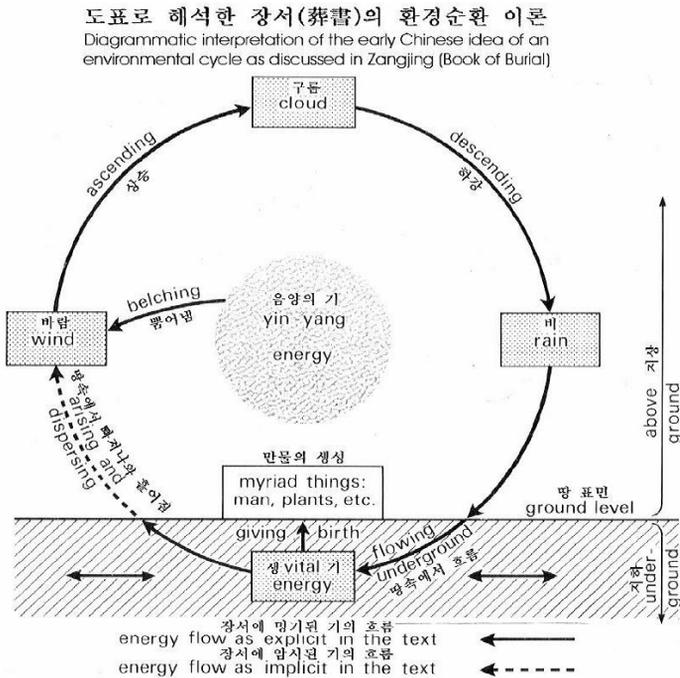
서구사상에서 인간[문화]과 자연은 대체로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개체로 보는 이원론(二元論, dualism, dichotomy)이다. 서양에서 인간과 자연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어서 그 둘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풍수사상

4) 장장식, 앞의 책.

5) 정영철, 『풍수설화의 건축적 해석과 의미에 관한 연구』, 『건설환경연구소논문집』, 제7권 2호, 청운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 2012.

6) 위의 논문, 204면.

에서 인간과 자연은 원래 같은 기(氣)에서 생성되어 생기가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는 일원론(monism)의 관점을 취한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곽박의 『장서』에 나오는데 “무덤에 묻힌 자는 생기를 탄다. 무릇 음양의 기는 뿔어내면 바람이 되고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내려오면 비가 되고 땅속을 가면 생기가 된다. ... 경에 이르기를 기가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⁷⁾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필자는 이 구절에 근거하여 풍수의 환경인자 순환도를 다음과 같이 그린 바 있다.⁸⁾



이 도표는 필자의 1985년도 논문에 포함된 도표에 한글 표기를 첨가한 것이다. 출처: Hong-key Yoon, "An early Chinese idea of a dynamic environmental cycle", *GeoJournal* 10(2), P.211, fig.1 (1985) (with kind permission of Kluwer Academic Publisher).

7) ‘葬者乘生氣也。夫陰陽之氣，噫而爲雲，升而爲雲，降而爲雨，行乎地中則而爲生氣。…經曰‘氣乘風則散，界水則止。(郭璞，『葬經內篇』，1877，1면.)’

8) Hong-key Yoon, *An early Chinese Idea of a Dynamic Environmental Cycle*, *GeoJournal*, Vol.10, No.2, 1985, p.211.

여러 풍수서 중에서 위의 『장서』에 나오는 구절만큼 풍수의 근본원리를 잘 알려주는 구절은 없을 것이다. 이 구절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체는 음양의 기에서 나와서 올라가느냐 내려오느냐 땅속을 흐르느냐에 따라서 바람도 되고, 비도 되고 생기도 됨을 말한다. 생기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을 살아 있게 하는 힘을 준다. 생물이란 생기가 응집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 모든 현상은 같은 본질 즉 음양의 기에서 시작되어 주위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고 순환하는 것이며, 인간은 자연현상의 일부이기에 인간과 자연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풍수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오직 생기가 다른 단계에서 다르게 나타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서양에서 인간과 자연 관계를 이해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된다. 풍수사상과는 달리 서양에서는 인간은 자연과 다르게 창조되었고 본질적으로 별개의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존재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풍수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 현상을 근본적으로 일원론적인 존재 현상으로 본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경계 또한 불분명하고, 인간과 자연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다르게 표현된 오직 다른 단계의 현상이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대신하여 기능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인간과 자연이 서로 호환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면이 한국의 풍수전설에서는 어떻게 소화되어 표현되고 있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III. 한국 풍수설화에서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기능하는 경우

먼저 한국 풍수설화에는 사람이 자연[명당]의 결점을 메꾸는 보조물로 사용되는 경우가 확인된다. 명당형국의 근본적인 조건은 자연이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이는 완벽한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약간의 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자연이 마련해준 명당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데가 있거나 보강이 필요할 때 그러한 결점을 인위적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한국 풍수지리설의 입장이다. 예를 들면 그 명당의 결점이 있는 곳에 탑을 세우거나 절을 짓고 냇물의 물길을 돌리거나, 돌무덤을 쌓고 지명을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자연 경관을

변경하여 경관을 고치는 경우가 허용되는 것이다. 즉, 풍수형국의 중요한 면이 자연적으로 갖추어 졌을 경우에는 그 풍수형국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람이 자연의 결점을 약간씩 보완하는 것을 비보풍수(裨補風水)라 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풍수설화에는 위와 같이 자연[명당]의 결점을 인위적으로 메꾸는 경우가 가끔 나타난다. 그 한 예로 괴산에 있는 조선 후기의 중요한 유학자이자 문신이었던 우암 송시열 묘에 관한 전설을 들고자 한다. 괴산에 있는 우암의 묘소에 관한 전설은 여러 각편이 전하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각편들은 그 장소가 얼마나 길한 곳인지 논하는 풍수적 해석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묘소가 장군대좌형(將軍對座形)의 명당인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하며, 이 풍수형국에 군졸 역할을 할 지형이 없는 것이 이 명당의 결점이라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 한다. 이 결점을 비보하기 위하여 청천시장을 만들거나 옮겨왔다는 데서도 이야기는 대체로 일치한다. 그 여러 편의 전설 중에서 한 전설형 설화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암 송시열의 묘는 충청북도 괴산군에 있는 청천시장(靑川市場)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우암의 묘소는 풍수형국으로 장군대좌형인데 산의 모양은 길한 장군형이나 그 곳에 장군이 지휘할 군졸로 볼 수 있는 지형이 없다. 이것이 무덤 앞 넓은 명당(明堂)의 결점이었다. 장군은 지휘할 수 있는 많은 군졸이 수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길한 풍수 형국의 장군대좌형국이 발복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암 송시열의 후손이 상평통보(常平通寶) 300냥을 주고 청천시장을 산소가 가까스로 옮겼다고 한다. 시장이 우암의 장군대좌형의 산소가 가까스로 옮기고 난 뒤에는 5일마다 열리는 장터에 많은 장꾼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 장꾼들은 장군대좌형의 군졸역할을 하여 풍수형국의 결점을 메우고 발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⁹⁾

이 전설은 현장조사로 채록된 구비설화가 가장 크게 집대성된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 되어 있지 않고, 조선조에 문헌화된 중요한 설화집을 모아 편집한 『조선조문헌설화집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전설이 구전되어 온 것은 사실로 보이며 충북 괴산군 청천면 문화관광-청천시장 사이트에는 “군사를 끌어 모으기 위해 송시열의 후손이 세운 시장”이라는

9) <주간조선(週間朝鮮)>, 1971년 10월 17일.

제목 아래 위의 전설과 내용이 상당히 비슷한 기사가 확인된다.

송시열 사후 그 후손들에게 아들이 없자 산소를 확인해 보니, 장군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사를 호령하는 장군대좌형의 명당이었다. 그런데 군사와 군량미가 없는 꼴이라, 군량미에 해당하는 사창을 산소 앞으로 옮기고, 군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1979(sic)년 시장을 세운 것이 지금의 청천시장의 유래이다. 송시열 8대손이 지역의 유지들과 상의해서 300냥의 출연금을 내세워 시장에 오면 그냥 돈을 주고 장을 볼 수 있게 하니,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벤트였던 셈이다. 사람이 모여들고 마을이 생기고 난 후 지형을 다시 살펴보니 배가 나아가는 모양의 행주형이 되었다 하여 배의 중심이 되는 포대가 위치하는 지형에 긴 나무를 놓고 포대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¹⁰⁾

위 기사는 <주간조선>에서 채집한 송시열의 묘지에 대한 전설 내용을 확인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중부일보>에 실린 “[정경연의 풍수기행] 괴산 우암 송시열 묘, 병졸 없는 장군대좌형…”에는 “송시열의 묘 … 이 자리는 장군대좌형으로 소문 나 있다. 앞에 장군 깃발과 같은 산이 있어 그랬던 모양이다. 그런데 병졸에 해당하는 산이 없어 발복이 안 되자 후손들이 청천시장을 묘 아래에 개설하여 사람들을 몰려들게 했다. 사람들을 병졸로 본 것이다. 그 뒤로 후손들이 번창 했다고 하나…”¹¹⁾ 라고 하였다. <중부일보>에 실린 전설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시장 웹사이트 기사와 함께 송시열의 묘지에는 군졸 역할을 하는 지형이 없어 시장을 옮겨 필요한 군졸형의 지형을 대치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만약 <주간조선> ‘풍수10강(風水十講)’ 연재¹²⁾에 나오는 전설이 활자화된 것으로 가장 빠른 것이라면 이 각편이 구비전승 설화의 상대적 연대 설정에 있어서 하한선이 되는 확실한 근거(terminus ante quem)가 되기 때문에 이 전설은 아무리 늦어도 1971년 10월 17일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에 확실한 증거가 된다. 청천면 청천시장 웹사이트에 들어 있는 전설은 <주간조선>에 실린 전설 보다는 늦게 활자화 되었으며 그 내용에 나오는

10) http://green-market.co.kr/bbs/board.php?bo_table=040101&wr_id=13.

11)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4474>.

12) <주간조선>, 1971년 10월 17일.

연대의 오류가 보인다. 예를 들면 1979년에는 현재 화폐 단위인 “원”을 썼고 300냥의 “냥”은 조선시대 화폐 단위였으며, 우암(1607-1689)의 8대손이면 1800년대 초기에서 중기에 살던 사람일 확률이 크다고 보인다. 그래서 청천시장의 기원을 1979년으로 표기한 것은 오류라고 생각되지만 장군대좌형의 명당이 군졸 역할을 할 지형이 없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청천시장을 우암의 산소 가까이에 개설하였다는 이야기는 우암 산소를 주제로 하는 세편의 전설이 모두 일치한다. 우암의 산소가 있는 장군대좌형의 명당이 군졸에 해당하는 지형이 없는 결점을 시장 장꾼들로서 군졸 지형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을 개설했고, 그것이 청천시장의 유래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연이 이곳 고장의 전설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 전설에서는 사람들이[장꾼들이] 그 지역 지형의 일부, 즉 풍수 형국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사람이 지형[땅의 모양] 역할을 하여 인간과 자연[지형] 과의 경계가 없거나, 있다고 하여도 그 경계가 희미하고 경직되지 않아서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사람들[장꾼들]은 서양의 개구리 왕자 같이 사람이 주술에 걸려 일정기간만 자연으로 변형¹³⁾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 아무런 변형 없이 일반 사람들[장꾼들] 그 자체로서 장군이라고 생각하는 산(山)의 지휘를 받는 군졸[작은 지형 지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의 현대 전설로 초등학교를 무덤 앞으로 옮긴 뒤 발복했다는 다음의 벌집형 명당 이야기를 들 수 있다.

모든 지관들이 인정하는 벌집형 명당에 한 묘소가 있었다. 이곳은 명당인데도 불구하고 자손들에게 발복하지 않았다. 1971년으로부터 50여년 전 한 초등학교가 이 묘소 근처에 건축되었을 때 자손들이 명당을 해친다고 반대하였다. 자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건축되었다. 이상하게도, 학교가 건축된 뒤에 이 명당이 발복하기 시작하여 집안이 번창하기 시작하였다. 발복된 이유는, 벌집 명당에 아이들이 모여 벌떼 역할을 하니 벌집에 벌이 많이 있게 된 격이어서 명당의 기능이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무덤의 후손들이 부자가 되고 난 뒤에 그 학교에 많은 돈을 기부하여 학교가 증축되도록 도왔다고 한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보다 많은 벌들이 벌집 명당에 오는 격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⁴⁾

13) 이 경우에는 개구리로 변형된다.

14) <주간조선>, 1971년 12월 12일.

위의 청천시장에 관한 전설과 벌집명당터에 관한 이야기는 둘 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 역할을 하여 자연[풍수형국]의 결점을 메꾸는 역할을 하는 경우다. 이들 풍수설화에서는 인간이 자연과의 경계를 넘어 자연의 일부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식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서양문화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IV. 한국 풍수설화에서 자연이 인간의 일부로 기능하는 경우

다음 전설은 위의 경우와 반대로 자연이 인간의 일부로 또는 인간의 연장으로 받아들여져 인간의 역할을 하는 한국 풍수설화이다. 먼저 대구 달성 서씨 시조 묘의 경우 지관이 무덤을 만들 때 인부 1000명이 도와야 발복하는 명당이라고 하니 사람이 아닌 개미가 개미집을 짓느라고 일한 것을 무덤 조성을 도운 일꾼으로 받아들이는 이야기이다.¹⁵⁾

달성서씨 집안의 시조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집안이 가난하여 짚신을 삼아 팔아서 생활하였다. 그런데 선달 그믐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옛 상례로는 해를 넘기지 않고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새해 설날 이전에 시신을 묻기로 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설 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동네에 알리지 않고 두 형제는 조용히 아버지의 시신을 등에 업고 동네에서 떨어진 곳으로 나갔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어서 눈은 몇 자나 쌓여 있고 땅이 푹푹 얼어서 시신을 묻지 못하고 있는데 한 곳을 보니 눈이 쌓이지 않았다. 그 곳은 불개미 집이었다. 그 개미 집 부근은 땅이 얼지도 않아서 개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묻으려고 그곳을 파냈다. 얼지 않은 개미 집터는 사람이 하나 서 있을 정도의 넓이 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두 아들은 아버지 시신을 서 있는 상태로 매장하여 무덤을 만들었다.

그 뒤로 아들들은 계속해서 짚신을 만들어 팔았는데 만드는 대로 팔리고 하여 살림이 제법 넉넉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너무 허술하고 급하게 지낸 것이 마음에 걸려 지관에게 자기들 아버지 묘소 상태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지관은 그 무덤을 보자 장소는 좋은데 시신을 서있는 상태로 매장했어야 길하다고 했다. 아들이들 그렇게 했다고 말하자, 또 지관은 이곳에 시신을 매장할 때 1000명의

15) 『한국구비문학대계』 3-2, 437~442면을 발췌 요약한 것임.

일꾼들이 일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아들이 천 명은 고사하고 자기들 둘이서 아버지 시신을 매장했다고 말하니, 지관은 그랬다면 이곳은 발복이 안 된다고 했다. 두 아들이 다시 생각해 보니 일꾼 천명이 자기들 아버지 장례를 도운 셈인데 그 일꾼들은 개미떼[수천 마리의 개미들]였다고 지관에게 말했다. 그랬다면 이곳은 명당발복의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발복할 명당이니 무덤 봉을 더 크게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고 지관이 일러주었다.

위의 이야기는 개미가 일꾼[사람]의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개미를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풍수설화이다. 개미 자체가 사람으로 변형되어 일을 하였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고 개미는 개미로 아무런 변화 없이 있으면서 개미가 자기들이 살 개미집을 지은 것을 두고 인간[일꾼]들이 사람의 무덤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여 도운 것으로 간주하는 이야기이다. 하긴 개미가 집을 지어 땅을 얼지 않게 하였다면 개미들이 달성 서씨 시조 장례에 참여하여 크게 도운 셈이기도 하다. 개미집 있는 곳만 빼고서는 땅이 다 푹푹 얼어붙어서 곡괭이로 땅을 팔 수 없었는데 개미집은 얼지 않아서 무덤 구덩이를 팔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였으니 말이다. 여기에서도 자연[개미]을 인간의 일부로 간주하고, 자연이 한 일을 인간이 한 일로 받아들여서 인간과 자연[개미]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다.

다음은 ‘명당 쓰고 탄생한 심왕비’라는 전설의 전반부 이야기¹⁶⁾로서 죽을 지경에 처한 올챙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풍수전설이다.

지관 심호창은 세 아들이 있었다. 그가 죽을 때 아들들이 아버지 당신이 묻힐 명당을 잡은 것이 있는지 여쭙니 도선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죽은 뒤 아들들이 도선에게 명당을 잡아 달라고 하니 도선은 아들들이 만인적덕(萬人積德)을 해야 명당을 찾는다고 했다. 그래서 아들들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옷을 나눠 주고 배가 고프은 사람에게는 음식을 주고 하여 적선을 하고 난 뒤에 도선을 다시 찾아갔다.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적선을 하였다고 하니 도선은 아직 적선을 더해야 한다고 하였다. 실망하여 돌아오는 길에 아들들은 웅덩이에 물이 말라서 거의 죽어 가는 수많은 올챙이를

16) 『한국구비문학대계』 7-15, 522~525면에서 발췌 요약한 것임.

보았다. 올챙이들을 모자에 담아서 냇물에 놓아 주자 올챙이들이 좋아하였다. 그
런 뒤 아들이 다시 도선을 찾아가서 올챙이를 도와서 적선을 한 이야기를 하
니 도선은 만인적덕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며 명당을 찾으러 가자고 하였다.

위의 전설에서도 앞의 달성 서씨 시조의 무덤 전설에 나오는 불개미의 경
우와 같이 올챙이를 사람으로 취급하는 풍수 설화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앞의
풍수 전설의 경우 불개미가 한 일¹⁷⁾을 1000명의 일꾼[사람]이 장례를 도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와 비슷하게, 죽어갈 지경으로 물이 말라서 폐죽음을
당할 지경에 처해 있는 올챙이를 물로 옮겨 살려 준 것을, 다시 말해 많은
올챙이에게 베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 즉 만인적덕으로 간주
한다. 만인적덕(萬人積德)은 문자 그대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덕을
쌓는다는 것이다.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덕을
베풀어도 충분치 않았는데, 동물[올챙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려 주자 비로
소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동물을 사람의 연장으로 보고, 사람
이라는 개념에 야생동물까지 포함하는, 곧 만인(萬人)을 만물(萬物)로 연장
하여 보는 유연한 관점이 보인다.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
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연장선상에서 불쌍한 올챙이에게까지 연장되었을 때
에야 비로소 만인적덕 즉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성취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자연관이자 인간관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풍수 전설에서는 자연[동물]이 한 일을 사람
이 한 일로, 자연에게 준 은혜를 사람에게 준 은혜로 여기는 면이 있으며 이는
바로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없거나 분명치 않아서 자연이 경계를 넘어와 인
간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이야기는 불교적인 영향이 상당히 보이는 설화라 할 수 있다. 우선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불교에서 중요한데 자비사상 즉 만인적덕(萬人積德)
이 이 설화에서 주제로 등장하고, 불교에서 살생을 피하고 생명을 돕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올챙이의 생명을 도운 것이 만인적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
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명당을 찾
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 역시 불교적인 수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17) 불개미 집을 만들어 땅을 열지 않게 한 것을 이야기한다.

있다. 또 이야기에 나오는 도선이 신라말 고려초에 비보풍수로 유명한 도선국사는 아니겠지만 풍수에 밝은 불교 선승 도선국사를 연상시키는 이름인 것도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올챙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불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올챙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불교적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한국 설화에 담긴 전통적인 사상으로서, 자연을 인간의 연장으로 보고 인간을 자연의 연장으로 보는 재래 한국사상의 일면이라 판단된다.

V. 한국 풍수설화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위의 네 가지 풍수전설 중 처음 두 편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간주되어 자연의 모자라는 점을 메꿔 주는 경우 즉 비보풍수이고 나머지 두 편은 자연을 인간의 일부로 간주하여 인간의 모자라는 점을 충족시켜 주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자연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자연이 인간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한국문화 속의 자연관, 인간관, 및 풍수를 통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설정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풍수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않고 유동적이어서 경직되어 있지 않고, 서로 경계를 뛰어 넘어 상대방의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전설에 나타난 자연관이나 인간관을 우선은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아가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을 노래하며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려 했던 동아시아 전통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동아시아 전통이 중국에서는 도교 신앙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역사가자 아더 라이터(Arthur Wright)는 그의 논문¹⁸⁾에서 도교신앙의 전통들은 자연과 하나되는 것(the oneness with nature)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 면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도교신앙은 “인간과 우주[자연]에 대한 유기체적인 견해로서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18) Arthur Wright, *A historian's reflections on the Taoist tradition*, History of Religions, vol.9, no.2·3, 1969·1970.

현상들은 솔기도 없이 완벽하게 서로 짜여 교호작용하는 존재들의 웹(web) 속에 하나로 엮여 있다.”¹⁹⁾는 것이다. 여기에서 라이터 교수는 도교신앙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엮여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설파하고 한 우리 안에서 서로 교호작용하는 존재로 보았다. 이러한 설명은 위에서 토론한 네 편의 풍수설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해설이다.

위에 든 네 가지 전설은 호랑이가 명당을 잡아 주었다는 류의 한국 설화와는 다르다. 잘 알려진 이러한 종류의 민담(folktale)으로서 황해도 연백군 운산면 호산리에 관련된 ‘호산(虎山)’이라는 제목의 전설은 다음과 같은 줄거리로 되어 있다.²⁰⁾

한 500년 전에 호산리에 사는 효성이 지극한 순흥 안씨는 3년동안 아버지 산소를 매일 밥을 한 그릇씩 준비 하여 찾아뵙고 절을 하였다. 하루는 안씨가 지난 날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 먹은 뒤) 입에 비너가 걸려 고생할 때 구해준 적이 있는데, 바로 그 호랑이가 자기 아버지 산소 앞에 앉아 있었다, 호랑이는 안씨를 돌아보며 곁었다. 안씨가 호랑이를 따라가니 어떤 곳에 가서 호랑이는 앞밭로 땅을 파는 시늉을 했다. 안씨는 그 모양이 자기 아버지 묘를 이곳으로 이장 하라는 것으로 알고 고맙다고 하니 호랑이는 기쁜 듯이 사라졌다. 안씨는 아버지 무덤을 그 곳에 이장하고 점점 부유해져 그 지방에서 첫째가는 부자가 되었다. 이리하여 그 무덤이 있는 산을 범매 곧 호산이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에서 동물과 사람이 서로 교호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호랑이를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호랑이는 호랑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람은 사람으로 있으면서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야기의 배경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순흥 안씨는 호랑이가 비너 꽃은 사람(부녀자)을 잡아먹는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너가 목에 걸려 고통 받는 것을 불쌍히 여겨, 입에서 비너를 제거해 구해주었다. 도와준 것은 사람이고 도움을 받은 것은 호랑이었다. 이야기에서 사람은 사람이고 호랑이는 호랑이다. 호랑이가 한 일을 사람이

19) “An Organic view of man and the universe, the notion that all phenomena (including man) are knit together in a seamless web of interacting forces---.” (Arthur Wright, *A historian's reflections on the Taoist tradition*, 1969, pp.248~249.)

20)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453~454면을 요약한 것임.

한 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호랑이를 도운 것은 동물로서의 호랑이 자체가 불쌍해서이지 호랑이를 사람으로 대접했기 때문은 아니다.

사람이 동물과 대화를 한다든지 동물에게 도움을 주고 교화한다든지, 위와 같이 호랑이와 사람이 서로 은혜를 갚아 준다는 식의 이야기는 인간과 자연이 따로 있는 존재이면서 서로 소통하며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서양 전설에서도 보이는데 중세 때 설교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떠드는 새를 꾸짖어 조용히 하게 하고, 사람을 해치는 늑대를 교화했다는 성 프란체스코에 대한 전설은 유명하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의 결점을 메꾸는 역할을 한다거나, 자연물이 한 일을 사람이 한 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연이 사람으로 혹은 사람이 자연의 일원으로 취급되는 이야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설화에 나오는 인간의 개념과 자연의 개념은 호랑이가 은혜를 진 사람에게 명당을 잡아주는 이야기에 나오는 것들과도 다르고 서양의 성 프란체스코 전설과도 사뭇 다르다. 위의 네 전설형 설화들은, 풍수지리사상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있더라도 희미하고,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어떤 사람들은 위의 네 편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인간과 자연[동물]과의 관계를 한국의 지네각시 이야기²¹⁾나, 두꺼비 신랑 이야기²²⁾와 비견될 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이야기는 오히려 서양의 개구리 왕자나 미녀와 야수에 비교될 수 있을지언정 이 논문의 주제가 되는 네 편의 설화에 나오는 인간의 개념, 자연의 개념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설정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두 민담의 말미에서 지네각시나 두꺼비 신랑 모두 허물을 벗자 아름다운 신부와 잘생긴 신랑이 되는데, 이는 서양의 미녀와 야수의 야수나 개구리 왕자가 모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인간이 되는 것과 유사하다. 주술에 의하여 인간 [왕자]이 자연물[야수나 개구리]로 상당 기간을 변하여 있었고, 미녀가 야수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들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자연물로 변하여 사람과 사귀었다. 서양의 개구리왕자이야기나 한국의 두꺼비 신랑 이야기의 경우는 단지 인간이 동물로 일정기간 변하여 있다가 다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네각시의 경우는 단군신화에서의 웅녀와 같이 원래 동물[지네]

21) 김동이와 지네각시, 『한국구비문학대계』 8-4, 503~522면.

22) 『구비문학대계』 7-3, 473~477면.

이었는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결국 사람으로 변한다. 그리고 지네가 완전히 사람이 되기 전에도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각[김동이]과 만나 사귀지, 지네 모습을 한 상태에서 사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인간과 자연이 일종의 교호작용을 하는 것은 맞지만, 올챙이에게 베푼 은혜를 사람에게 베푼 은혜로, 또는 장군들을 군졸에 비길 수 있는 지형으로 대신해서 받아들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호랑이가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이야기도 역시 호랑이는 호랑이로 있고 사람은 사람으로 있으면서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 두꺼비 신랑의 경우에는 원래 사람이었던 자가 두꺼비 형상을 하고 있다가 결국 허물을 벗고 다시 사람이 되는 경우이며, 지네 각시도 지네가 사람으로 변하여 인간으로 살게 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룬 네 편의 풍수전설은 한국의 지네 각시이야기나 두꺼비 총각이야기와는 다르며, 서양의 개구리 왕자 이야기나 미녀와 야수 이야기와도 다르다. 올챙이 이야기는 올챙이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올챙이가 올챙이 그대로의 삶을 더 잘 살도록 사람이 은혜를 베푼다. 이는 동물에 대한 자비 정신을 사람에게 베푼 자비로 인정하는 것이며, 살아 있는 사람을 군졸지형 즉 자연지형으로 받아들이는 장군대좌형 이야기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풍수설화를 비롯한 한국의 각종 설화에는 호랑이, 늑대, 여우, 지네, 달팽이(우렁이), 등 여러 동물들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중국 설화에는 동물을 소재로 한 설화가 아주 적다고 한다. 서양에는 동물 소재로 한 설화가 상당하고, 서양 지식인들, 특히 수도원의 수도승 학자들은 자연 현상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가축에 대한 공부는 상당하나 야생동물에 대한 공부는 빈약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풍수설화에는 우리의 불개미나 올챙이가 나오는 이야기 같은 것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양에는 생물학사 재료가 풍부하다. 옛날 수도승 학자(Christian monk scholars)들이 자연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탐구하기 위해 또는 하느님의 천지창조를 증명하기 위해 자연현상을 공부하여, 많은 연구와 조사 자료들을 남겼다. 그래서 조셉 니담(Joseph Needham)이 중국의 과학문명사를 집필하기로 하고 1954년에 원래 계획을 출판하였을 때 중국에도 서양과 같이 생물학²³⁾에

관한 연구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중국동물학사를 계획했다고 한다.²⁴⁾ 그러나 막상 중국 자료를 대해 보니 중국에는 가축에 대한 (경제성과 실용성이 있는) 연구는 상당하나 서양과 달리 경제적 이익이 없는 자연 속의 야생동물이나 야생식물 현상에 대한 연구는 아주 빈약했다고 한다. 그래서 니담이 원래 계획한 날부터 25년 뒤 1979년에 그 연구팀은 농작물이나 의약품 자원에 대한 책은 출판했지만 중국동물학사는 아직까지도 집필하지 못했다고 한다.²⁵⁾ 유명한 중국설화 연구자인 볼프람 에버하트(Wolfram Eberhard)는 중국에는 야생동물을 소재로 한 설화가 아주 적다고 했다(버클리에서 그의 사회학 강의를 들을 때 들었던 이야기). 이에 비해 한국설화에는 야생동물을 소재로 한 것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한국설화는 중국설화²⁶⁾와 구별된다. 이 올챙이와 불개미 이야기도 야생동물을 다루는 설화 중의 하나이며, 이외에도 한국에는 호랑이 여우 늑대 뱀 특히 구렁이, 까치 등 동물 설화가 매우 많다.

VI. 마무리

풍수는 중국에서 생성되어 한반도로 전파된 택지술로서 명당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는 기복신앙으로 상류층에서 하류층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풍수원리는 주로 중국에서 유래된 풍수지리 고전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위에서 논한 한국 풍수 설화 네 편에서와 같이 살아 있는 사람들이 지형의 결점을 메꾸어 주거나 개미가 한 일을 사람이 한 일로 받아 주고 올챙이에게 베푼 은혜를 사람에게 베푼 은혜로 받아 주는 사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자연을 인간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하고,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여기는 것은 전통적인 한국 사상(indigenous thought in Korean culture)의 일부가 아닌가 한다. 중국에는 동물설화가 희귀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23) 자연현상, 특히 야생동물에 대한 학문을 지칭한다.

24) Hong-key Yoon, *Four Points to be considered when writing "A History of Science and Civilisation in Korea,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vol.42, 2015, p. 87.

25) *ibid.*, pp.86~88.

26) 이때 중국설화는 소수민족 설화가 아닌 주류 한족 설화를 가리킨다.

이다.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구분을 없애고 서로를 서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중국과는 구별되는 한국 고유의 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한국문화의 특징을 보다 더 깊이 따져보고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최상수, 『韓國民間傳説集』, 통문관, 195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韓國口碑文學大系』,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곽박, 『葬經內篇』, 湖北崇文書局, 1877.
(주)조선뉴스프레스, <주간조선>, “風水十講”(1971년 8월 29일부터 1971년 12월 26일
까지 연재).
충북 괴산군 청천면, 문화관광>푸른내 시장투어>청천시장(http://green-market.co.kr/bbs/board.php?bo_table=040101&wr_id=13, accessed on 13 August 2019)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4474>,
accessed on 13 August 2019)

2. 단행본

- 서대석 편저, 『朝鮮朝文獻說話輯要』 I·II, 서울: 집문당, 1991·1992.
신월균, 『풍수설화』, 밀알, 1994.
장장식, 『韓國의 風水說話 研究』, 민속원, 1995.
이미현, 『남부지방의 풍수설화연구』, 문경출판사, 2008.

3. 논문

- Arthur Wright, *A historian's reflections on the Taoist tradition*, History of Religions, vol.9, no.2·3, 1969·1970, pp.248~255.
Hong-key Yoon, *An early Chinese Idea of a Dynamic Environmental Cycle*, GeoJournal, Vol.10, no2, 1985, pp.211~212.
Hong-key Yoon, *Four Points to be considered when writing "A History of Science and Civilisation in Korea"*,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vol.42, 2015, pp.73~92.
정영철, 『풍수설화의 건축적 해석과 의미에 관한 연구』, 『건설환경연구소논문집』, 제7권 2호, 청운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 2012, 194~206면.

Concepts of humanity and nature in Korean geomancy tales

Yoon, Hong-key

Human attitudes toward nature are well reflected in some geomancy tales in Korea. This paper analyzed and explained four Korean geomancy tales - The Legend of Song Siyöl's grave in a geomantic landscape suggestive of an army general's commanding posture, The Legend of the geomantic beehive landscape, The Legend of the progenitor of the Sŏ family from Talsŏng, The Legend of Queen Sim who was born after the making of a grave at an auspicious site. In the first two legends people function as natural elements in order to make up the shortcomings of a geomantic landscape. In the remaining two stories people's charitable deeds towards nature were treated as if they were actually charitable deeds towards human beings. Regarding (1) nature as an extension of humanity and (2) human beings as an integral part of nature is a particular aspect of traditional Korean attitudes toward nature.

keywords: geomancy, geomantic folk narratives, humanity-nature relationships, attitudes toward nature, auspicious site

접수일자: 2019. 9. 30. 심사기간: 2019. 10. 1.~2019. 11. 10. 게재결정: 2019. 11. 10.
